

2월 13일자 한겨레 “4대그룹 고용, 전체 일자리 2% 불과” 기사관련 한경연 참고자료

동 기사는 “4대 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20% 안팎에 이르나, 고용의 규모는 전체 2,424만 4천명의 2.1%에 불과하며, 4대 그룹이 신규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도 100명 중 5.9명에 그친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전체 고용 2,424만 4천명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규모이므로 기업의 고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낮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2011년 4월 기준)에 따르면 2010년 기준대비 4대 그룹의 종업원 수 및 2010년 대비 채용 증가분의 통계치는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대기업 고용

- (보도 내용)

4대 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20% 안팎에 이른다. 그러나 고용의 규모는 전체 2424만4000명의 2.1%에 불과하다. 4대 그룹이 신규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도 100명 중 5.9명에 그친다.

- (한경연)

- 전체 고용 2424만4천 명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규모임. 따라서 기업의 고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낮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매년 4월 기준)에 의하면 4대 그룹의 종업원 수는 2011년 4월 기준 532,629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735만7천 명)의 3.1%
- 4대 그룹 종업원 수는 2010년 4월 대비 63,123 명 증가하여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36만3천 명)의 17.4% 차지
- 전체 취업자 증가(37만9천 명)와 비교하여도 16.7% 차지

- (보도 내용)

전경련은 지난해에도 30대 그룹의 신규채용이 12만4000명, 투자규모는 114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은 없다. 전경련이 발표한 연간 고용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연간 신규 취업자 수의 25~30%에 이른다. 실제 채용 규모는 발표된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게 현실이다.

- (한경연)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매년 4월 기준)에 의하면 2011년 4월 기준 30대 기업집단 종업원 수는 1,061,363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735만7천 명)의 6.1%
- 30대 기업집단 종업원 수는 2010년 4월 대비 92,015명 증가하여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분(36만3천 명)의 25.3%를 차지
-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37만9천 명)와 비교하여도 30대 기업집단 종업원 수 증가는 전체의 24.3%를 차지
-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는 2.1% 증가한 반면 30대 기업집단 종업원은 9.5% 증가

<표 1> 대기업 고용 변화

	2010.4	2011.4		02~08년 평균 증가율	
			증가폭		증가율
30대 그룹 (명)	969,349	1,061,364	92,015	9.5%	3.9%
고용증가 상위 15개 그룹 (명)	799,945	907,616	107,671	13.5%	7.2%
취업자 (천 명)	23,924	24,303	379	1.6%	1.3%
민간부문 취업자 (천 명)	22,904	23,339	435	1.9%	1.2%
임금근로자 (천 명)	16,994	17,357	363	2.1%	2.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자료시스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2009년 이후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자료는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09년 이전 자료는 연평균을 사용하였다.

□ 대중소기업 경영성과 비교

- (보도 내용)

실제로 중소기업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재벌 계열 대기업들의 순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의 순이익률은 하락하고 있는 까닭이다.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을 보면, 2000년대 초반 해도 중소기업의 순이익률은 3%대로 대기업보다 높았다. 그러나 2004년을 정점(4.31%)으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1.77%로 떨어졌다. 반면 대기업은 2000년 1.13%에서 2006년 5%대로 올라선 뒤 줄곧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순이익률 격차가 세 배 이상 벌어졌다.

- (한경연)

- 수익률을 평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비교함. 그러나 부채를 감안하는 순이익률을 비교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순이익률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음.
- 2000년~2010년 사이 매출영업이익률 변화를 보면 대기업(7.04% → 6.92%)과 중소기업(5.60% → 5.21%)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한편, 대기업의 기업순이익률이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진 것은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같은 기간 크게 하락(161.54% → 99.10%)한 것에 기인

<표 2> 대중소기업 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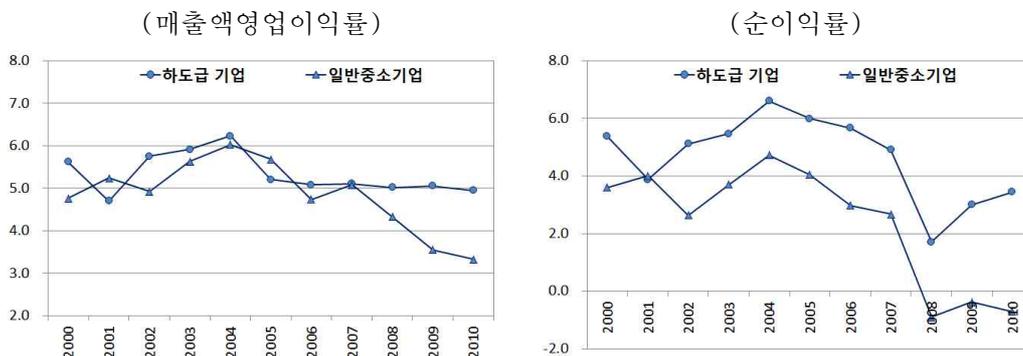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순이익률		부채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2000	7.04	5.60	1.13	3.11	161.54	175.48
2001	5.73	5.51	1.06	3.00	140.77	174.08
2002	7.47	5.47	3.74	3.41	133.65	169.44
2003	8.08	5.50	4.64	3.54	117.20	169.15
2004	8.80	5.67	7.28	4.31	104.90	168.76
2005	7.30	5.41	6.23	4.09	97.96	178.07
2006	6.41	5.08	5.41	3.08	96.67	195.99
2007	6.69	5.27	5.59	2.62	94.21	219.54
2008	5.69	5.11	2.41	0.02	114.35	207.21
2009	5.98	5.14	3.89	1.63	106.48	199.84
2010	6.92	5.21	5.37	1.77	99.10	207.79
평균	6.92	5.36	4.25	2.78	115.17	187.76

참고자료: 위평량(2011) 『대기업과 중소기업(하도급 및 일반중소기업)간의 경영격차 분석과 시사점』 경제개혁리포트, 2011-26호, 경제개혁연구소

- (참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와 일반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경우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 수익률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래 <그림 1> 참조)

<그림 1> 대중소기업 이익률



참고자료: 위평량(2011) 『대기업과 중소기업(하도급 및 일반중소기업)간의 경영격차 분석과 시사점』 경제개혁리포트, 2011-26호, 경제개혁연구소